



고려대학교병원, JCI 재인증 획득

제4차 개정판 재인증 평가, JCI 재인증 획득 환자 안전과 관련된 새로운 문화 형성 성공



에 대한 의료체계가 국제 수준 이상의 단계에 정착했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1,222개 항목 중 98% 완전충족

고려대학교병원은 이번 JCI 재인증에서 총 1,222개 항목 중 98%를 완전충족했다. 재인증평가단 역시 최종 평가에서 “매우 잘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먼저, 전반적으로 규정이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받았다. 규정에 환자확인, 항목, 방법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필수 요건을 다 포함하고 있으며, 더불어 잘 수행되고 있었다. 특히 수술과 마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또한 외래와 병동의 환자평가나 진료에 있어서도 규정과 시행이 매우 잘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무엇보다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호응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평가자들은 “조사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질문에 충분히 답변하고 설명하려고 노력했으며, 자료를 요청했을 때 즉각적으로 찾아서 전달하려는 모습이 매우 좋았다”고 칭찬했다. 더불어 “조사자가 질문을 했을 때 적극 수용하려는 자세가 훌륭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고려대학교병원(원장 박승하)이 JCI 재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평가 기준이 한층 강화된 제4차 개정판으로는 국내에서 처음 재인증 평가를 받은 것이어서, 고려대학교병원이 세계적인 수준의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8월 중순, 고려대학교병원은 JCI로부터 재인증 획득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최종적으로 전달받으며, 국내에서 두 번째로 재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 3년간 JCI 기준 지켜졌는가? 고대병원 OK!

재인증 평가는 처음 JCI 인증 평가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웠다. 최초 인증이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면 재 인증은 그러한 제도 하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임기응변식의 평가준비는 불가능했으며, 병원의 시스템과 관리체계가 그대로 평가 결과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번 재인증 평가는 기존보다 평가기준이 훨씬 강화된 ‘JCI 국제 표준집 제4차 개정판’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제4차 개정판은 기존 3판에 비해 ▲ 통합적인 병원 내 감염관리의 강조 ▲ 다 학제간 통합 진료 체계 ▲ 안전한 전원 실시 ▲ 각종 검사결과 환자의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추후 조치를 위한 시스템 마련 등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관련 평가부분이 더욱 세밀하게 다뤄졌으며, 국내에서는 제4차 개정판으로 재인증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처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병원이 JCI 재인증을 획득했다는 것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 新 JCI 문화, 안전에 대한 전 직원의 공감 형성

JCI 재인증은 고려대학교병원에 새로운 문화를 형성했다. 평가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환자안전이 아니라, 늘 몸에 배어 실천되는 환자 안전과 질 향상 관리문화가 정착됐다.

가장 큰 일례로 ‘환자의 확인’이 그렇다. 병동에 입원한 환자에게 매일 반복해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환자도 답하는 절차를 처음에는 의사도, 간호사도, 환자도 다 불편해했다. 며칠 지나면 얼굴도 익히고, 척보면 누군지 다 알게 되는 사이인데, 일일이 물어보고 답하는 것이 번거로운 법도 할 터.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자 모두가 당연한 절차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만큼 환자가 뒤바뀌거나 잘못된 진료 및 케어가 이루어질 확률이 줄어들게 됐다.

JCI 인증 이후 병원 곳곳에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일시적인 평가 준비에서 시스템 구축으로 더 나아가 안전에 대한 전 직원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기에 까지 이른 것이다.

• 탁월한 리더십, 세계수준의 안전한 병원 이룩

JCI 인증 평가단이 탁월하다고 평가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리더십’이다. 향후 병원 발전에 대한 비전이 분명하고 명확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도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화재단기금기부 기부내역(백만원)

12.02.27	이상훈	₩ 20,000,000	12.06.08	이승배	₩ 10,000,000
12.04.26	전용혁	₩ 50,000,000	12.05.30	정다금	₩ 3,000,000
12.04.27	이철희	₩ 5,000,000	12.05.24	김현철	₩ 100,000
12.05.10	의과대학40회동기회	₩ 113,000,000	12.06.04	이명진	₩ 10,000,000
12.05.11	이영인	₩ 10,000,000	12.06.08	권순은	₩ 5,000,000
12.05.31	전지민	₩ 10,000,000	12.06.25	이상현,김은영	₩ 100,000,000
12.06.04	김승유	₩ 100,000,000	12.07.06	최종욱	₩ 5,000,000
12.06.04	이기훈	₩ 5,000,000	12.07.16	천의영	₩ 10,000,000
12.06.04	유현	₩ 10,000,000	12.08.30	유세화	₩ 20,000,000

* 기간 : 2012년 02월 27일~2012년 08월 30일, 순서는 기부(약정) 일자 기준임



고려대 안암병원은 JCI 인증을 획득한
세계가 인정한 가장 안전한 병원입니다.



다. 또한, 이러한 비전에 대한 전 직원의 공감력이 잘 형성되어 있어 모두 한 방향을 향해 성실하고 꾸준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JCI 인증에 대한 전 직원의 협력과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JCI 인증 준비 초기에는 강도 높은 평가 시행과 복잡한 규정들이 생기는데 대한 업무증대를 비롯해 미국의 의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비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환자의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라는 신념으로 전 직원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고, 직원들의 솔직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평가단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만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JCI 재인증 획득하며 세계적인 수준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 원하는 곳엔 어디든 JCI 인증 노하우 공유

고려대학교병원엔 향후 JCI 인증관련 노하우를 원하는 곳에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첫 번째 인증 획득 때도 요청하는 곳에는 인증 노하우를 전부 전달했다. 이러한 방침은 재인증 획득 이후에도 여전히 변함없다. 특히 이번에는 JCI Practicum (JCI 인증 현장실습 교육) 주관병원으로 지정돼 9월 중순에는 국내외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고려대학교병원에서 현장실습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승하 원장은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다" 며 "환자 중심의 의료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 고 말했다.

● 세계적인 의료기관? 이제 안전이 문제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은 이미 세계적인 반열에 올랐다. 해외 학회에서 한국의 의료진을 초청해 수술방법, 치료 노하우를 배워간다. 해외 주요 저널에도 끊임없이 한국의 논문이 게재되며, 외국에서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시대가 됐다.

이제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후대처에 급급하기 보다는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생명을 맡기는 환자에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고려대학교병원 박승하 원장은 "큰 사고 한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29건의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300건의 사소한 사고가 일어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JCI 인증은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을 철저히 갖춰 신호를 보내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며 "이번 JCI 재인증 획득을 통해 어떤 의료인이 어느 환자를 진료하고 케어하든지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기회를 통해 고려대학교병원이 세계적인 수준의 병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고 말하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JCI 인증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준 JCI 준비 팀과 QI 실을 비롯한 온 교직원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JCI 재인증 획득을 축하하며!

고려대학교병원 교직원 여러분!

우리병원이 JCI 재인증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결과를 전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국제 수준의 평가기준에 맞춰 철저히 준비해주신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같은 결실을 맺기까지 많은 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JCI 인증 기획단계부터 실질적인 추진과 후원을 해주신 김린 의무부총장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손창성 전임 부총장님, 김창덕 전임원장님, 이상학, 정광운 전임 부원장님을 비롯한 전임 보직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QI팀과 박종훈 위원장을 비롯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교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직접 느끼셨겠지만, 이번 재인증은 첫 번째 JCI 인증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평가기간동안 안만이 아닌 지난 3년간 JCI 기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는지를 자세히 조사했고, 더 나아가 이와 관련된 시스템이 구축되고 개선되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조사기간 동안 저희 병원 교직원엔 물론 청소, 세탁을 담당하는 외부 직원들 까지 누구 하나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JCI 재인증은 여러분의 공감과 열정, 노력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평가단이 교직원 여러분이 JCI 인증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며 무엇이든 신속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직원들이 JCI 평가에 임하는 일치단결한 모습과 의지를 높게 칭찬하였습니다.

JCI 인증은 환자를 위한 일입니다. 내 가족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이미 세계적인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환자를 빨리 보기위해 그동안 간과했던 '안전'에 대해 깊이 염두하고 대비해야할 때이며, JCI 인증평가는 바로 이를 위한 것입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작은 사고나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JCI 재인증을 통해 사전의 작은 경고들이 발생했을 때 위험성을 빨리 인식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환자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JCI 재인증 획득을 위해 노력하신 여러 교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JCI 재인증 받은 고대병원은 의료의 질이 최고수준의 국제병원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교직원 여러분께서는 국제적 수준의 최고병원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JCI 재인증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 병원에서도 늘 유지될 수 있도록 신임 손창욱 QI 위원장을 비롯한 온 교직원 여러분께서 계속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JCI 재인증 획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병원장 박 승 하



고려대학교병원 JCI 재인증 획득 기념행사 성료!



고려대학교병원은 지난 8월 31일(금) 병원 대회의실에서 'JCI 재인증 획득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JCI 재인증 획득을 대내외에 선포함과 동시에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환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500여명의 교직원이 참석해 대회의실을 가득 채웠으며, 박승하 원장의 기념사, 김린 의무부총장의 축사 시작으로 이기형 진료부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5개 부서, 2개 협력업체, 30명의 직원에 대한 포상이 실시됐다. 기념행사 직후에는 의과대학 광장에서 1,000여명의 교직원이 운집한 가운데 만찬을 실시했다. 특히, JCI 인증을 기획할 당시의 김형규 전임 병원장과 2009년 JCI 첫 인증을 받을 당시의 손창성 전임 병원장과 이상하 전임 진료부원장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내기도 했다.

김린 의무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JCI인증은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저수가 의료정책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다"며 "그 동안 고생하신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축하했다. 박승하 병원장 역시 기념사를 통해 "JCI 기간 중 교직원은 물론 협력업체까지 누구 하나 긴장을 늦출 수 없었을 것이다. 모두 수고하셨다"며 "JCI 인증이 한번의 이벤트가 되지 않고, 앞으로도 이러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포상대상자 명단〉

- I. 부서포상
 - ▲ 간호부 ▲ 총무팀 ▲ 약제팀 ▲ 시설팀 ▲ 전산운영팀
- II. 협력업체포상
 - ▲ 태가BM ▲ 녹색자원
- III. 직원포상
 - ▲ 구급소생위원회 이성우 교수 ▲ 신경과 유성욱 교수 ▲ 구급소생위원회 박중수 임상강사 ▲ 산부인과 김윤병 전공의 ▲ 혈액종양내과 강동오 전공의 ▲ 정형외과 정태완 전공의 ▲ 간호부 임명옥 외래특수간호팀장 ▲ 간호부 추영수 수간호사 ▲ 간호수 강주연 수간호사 ▲ 간호부 이희선 수간호사 ▲ 약제팀 여윤정 부팀장 ▲ 영양팀 오용택 부팀장 ▲ 적정진료관리팀 한슬기 간호사 ▲ 적정진료관리팀 박유선 대리 ▲ 적정진료관리팀 김은희 대리 ▲ 총무팀 김좌진 대리 ▲ 총무팀 박성호 대리 ▲ 안전관리실 이길훈 안전관리자 ▲ 기획팀 이재호 대리 ▲ 원무팀 권현경 대리 ▲ 관리팀 의공파트 윤종호 일반기술직 ▲ 시설팀 김재현 주임건축기사 ▲ 의료정보팀 정영내 주임무기록사 ▲ 영상의학과 이용재 부팀장 ▲ 병리과 황문선 주임임상병리사 ▲ 재활의학과 김민태 주임물리치료사 ▲ 의료사회사업실 전승룡 사회사업사 ▲ 감염관리실 김현정 감염관리사 ▲ 간호부 조항직 일반업무원 ▲ 진단검사의학과 최선중 시간제일반업무원

한국 의료기관에서의 국제 인증(JCI)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국의 의료기관들이 국제 인증(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을 받기 시작한 것이 불과 몇 년이 안 되었지만 어느덧 동북아시아에서는 국제인증 획득 면에서는 독보적이고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다.

선진국 수준의 의료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의료기관들이 왜 굳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미국 중심의 국제인증을 받으려고 하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많았고 견제도 상당했던 것이 사실이다. 병원의 의료기관 국제인증을 수년간 담당했던 필자로서는 종종 정말 의미가 없는 불필요한 일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곤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제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렇다.

시설과 수술의 술기, 치료 성적 등을 보면 대한민국의 의료기관들은 분명 선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의료기관에는 적어도 최근까지도 환자 중심의 의료문화는 없었다. 치료 하려는 환자가 그 환자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시작부터 치료가 끝나는 시점까지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 어떠한 조치도 없는 그야말로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의료였던 것이다.

그렇다보니 걸핏하면 다른 환자의 약물이나 혈액이 잘못 투여되고 비교적 쉬운 수술을 받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망하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지만 수술 부위도 심심치 않게 바뀌곤 한다. 애석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지는 않고 우리 사회는 고발과 비난 그리고 책임여부에만 관심들을 가져왔다. 한마디로 환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의료 문화는 우리 의료에는 없었던 것이다.

반면에 서구에서는 일찌감치 의료 안전에 대해 많은 연구와 제도적 장치들이 도입되었는데 바로 그 점을 우리 의료에도 도입해서 진정 선진의료다운 면모를 갖추고자 한 것이 의료기관 국제인증 도입의 근본적인 취지였다.


3년 전 초기 인증을 받고 최근에 3년 마다 실시되는 재인증을 받고 난 후 필자의 병원 시스템을 보면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안도의 숨을 내쉬곤 한다.

모든 중대한 검사와 시술 때 마다 반드시 두 번의 환자 확인 과정을 거치고 병원의 모든 시설과 시스템은 환자의 감염 및 의료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며 수술 전에는 최소한 두 세 번의 확인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집도 직전에 다시 한 번 환자와 진단명, 수술 부위 그리고 수술 명을 확인하는 마지막 절차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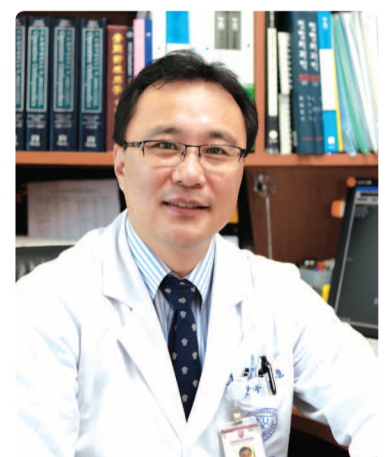
입원 기간 내내 환자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철저히 기록으로 확인되며 중대한 결과는 반드시 확인해서 통보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의사의 약물 관련 오더는 자동으로 검증 절차를 거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행위와 약품들은 수시로 발견해서 개선 노력을 한다. 심지어 병실의 냉장고 온도 까지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돌이켜보면 의당 관찮겠거니 하고 환자의 이름도 묻지도 않고 시술하던 인증제 이전의 관습들을 생각해 보면 아찔하기도 하다.

통상적으로 의료 사고의 60-70%는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의료진이 그 누가 하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하는 것이 의료기관 국제인증의 취지고 이는 한국 의료문화의 선진화에 초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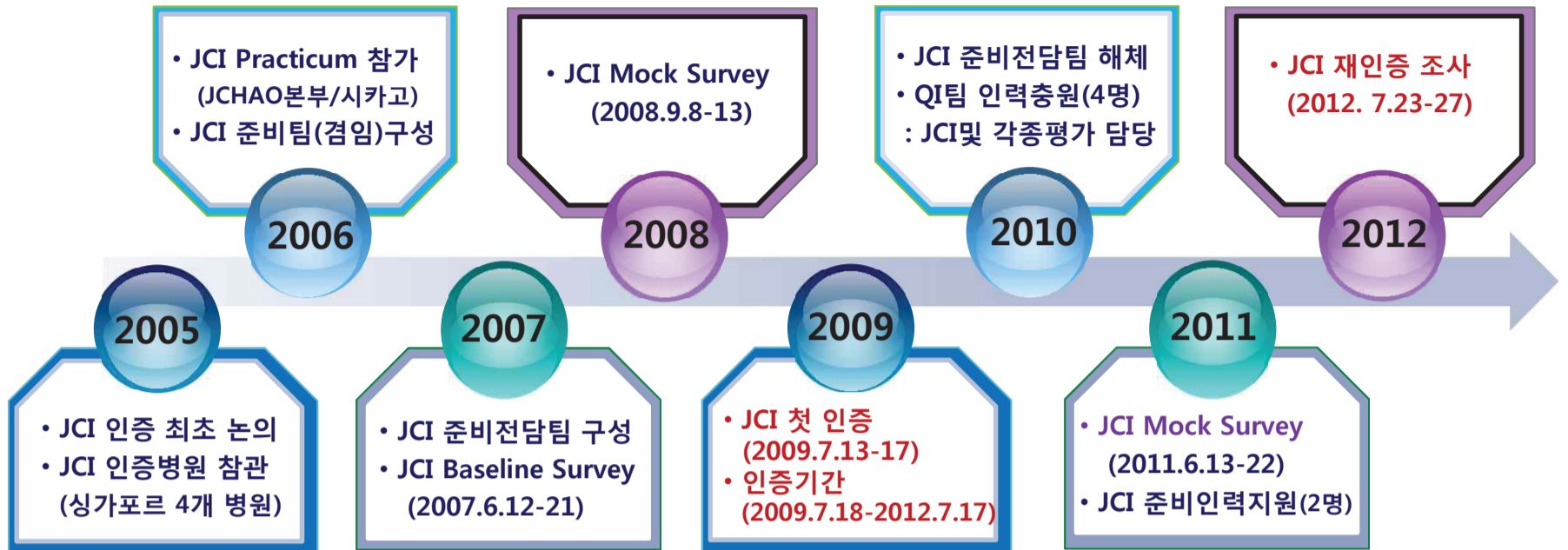
모든 의료기관들이 국제 인증을 득할 필요는 없다. 또 국제 인증이 우리의 문화와 여건에 맞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도 옳은 지적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국제인증이건 무엇 이건 간에 환자의 안전은 좋은 의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다.

수술은 아주 잘하는데 종종 의료사고를 내는 의료 기관에 요행을 바라고 내 몸을 맡길 환자가 어디 있겠는가? 

박중훈 QI & CP 위원장



고려대학교병원 JCI 인증 히스토리



1. JCI 골든벨을 울려라!



2009년 당시 국제병원으로의 재도약을 꾀하고 있던 고려대 병원은 7월 JCI 본평가를 앞두고 철저한 준비와 함께 '도전! JCI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 간호부 주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100여명의 의료진을 비롯해 수백명의 응원단이 29일 대회의실에 모여 진행됐으며, 도전에 나선 의료진 모두 하나 같이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며 막판까지 자웅을 겨뤘다. 이날, 2시간가량 난이도 높은 문제를 모두 맞추고 최종 관문까지 남아 골든벨을 울린 주인공은 이비인후과 외래 김선희 간호사에게 돌아갔다.

2. 첫 JCI 인증 획득, 세계최고의 글로벌 안전의료서비스 시동



8월 31일(월) JCI 인증을 획득해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안전한 병원(Global Safety, KUMC)"으로 공식인정 받았다. 이때 평가에 적용된 JCI인증 3차수정판은 약 1,200개의 평가항목을 가중치 없이 전항목에 걸쳐 완벽하게 통과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준에 비해 인증기준이 대폭 강화된 상태였다.

고대병원은 JCI인증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공유하고, 선도적 획득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JCI 인증평가 경험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외국인 환자 진료 시설의 확충 ▲외국인 전담 의료진 및 전담팀 구성 ▲외국인 전용 행정시스템 구축 ▲외국인 환자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의료상품 개발 ▲국내·외 대행사 및 보험사와 MOU 체결 ▲치료 후 환자가 출국 했을 때 연계 가능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 ▲지속적인 해외 광고 수행 등의 과감한 정책집행으로 글로벌의료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도 했다.

3. JCI 인증 기념 축하 행사



9월 17일에는 대회의실에서 고려대학교 이기수 총장, 오동주 의무부총장, 손창성 안암병원장등 당시 주요 보직자와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JCI 인증 기념 축하 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JCI 인증 관련 공로자 포상 및 슬로건 공모 수상자를 발표 했다. 기념식에 이어 4층 심혈관센터 앞 주차장에서 JCI 인증 획득을 위해 수고한 직원들을 위한 만찬을 진행하기도 했다.

4. JCI CEO 방문



9월 22일 오후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방문단이 병원을 찾았다. JCI 최고경영자 Ms. Karen Timmons 와 JCI 아시아태평양지부장 Dr Paul Chang 이 직접 고대병원의 JCI 인증을 축하하고, 동시에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하기 위한 자리였다.

Ms. Timmons 는 "고대병원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높은 수준의 병원이며, 훌륭한 시스템을 갖춰 배울 점이 많았다" 며 고대병원 평가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Dr Chang 은 "고대병원의 JCI 인증을 축하한다. JCI 인증을 준비하는 다른병원들에게 인증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라 들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일이라 생각한다" 며 고대병원과 JCI가 추구하는 공통가치를 재확인했다.

5. JCI 재인증 위한 TFT 본격 가동



2011년 3월 22일, 'JCI 재인증 준비 TFT 발대식' 을 개최하고 JCI 재인증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JCI TFT는 병원평가책임교수 36명과 지원부서 25명 등 총 6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발대식에 교직원 100여명이 참

[JCI 리포트1]

석해 JCI 재인증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JCI TFT 발대식 이후 적정진료관리팀은 직원의 효과적인 질향상과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2011 QI&RM(Quality improvement and risk management)워크샵'을 개최했다. Workshop에서는 지표, QI, CP의 개념 및 활동방법과 위험관리에 대해 약 3시간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직원 약 13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호응을 얻었다.

6. JCI 재인증 위한 교육 실시



3월 28일과 29일에는 대회의실에서 'JCI 인증기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 첫날에는 적정진료관리팀 김은희, 박유선 대리의 ▲진료의 이용과 연결 ▲환자와 가족의 권리 ▲환자와 가족의 교육 ▲환자평가 ▲

환자진료 ▲정보교환과 정보관리 ▲약물관리와 사용 등의 교육이 진행됐으며, 둘째날에는 적정진료관리팀 박미정 부팀장의 ▲질향상과 환자안전 ▲국제환자안전목표 ▲행정, 지도력 및 관리 감염관리실 이승은 감염관리사의 ▲감염예방과 관리 적정진료관리팀 장형은 대리의 ▲시설 관리와 안전 ▲마취와 수술진료 ▲직원의 자격요건과 교육 등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7. 긴장된 열흘간의 JCI 모의 조사(Mock Survey)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약 열흘간 재인증 JCI 모의조사(Mock Survey)가 진행됐다. 총 3명의 조사자가 방문한 이번 모의조사에서는 다양한 개선 권고사항이 쏟아져 병원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8. 필승! JCI 재인증 100% 획득!! 패치 수여식



2012년 2월 15일에서 재차 'JCI 재인증 준비위원 발대식'을 갖고 재인증 준비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선정된 JCI 재인증 준비위원은 총 69명으로, 진료과별 병원평가교수, 각 진료 및 행정부서장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준비위원에서 JCI 재인증 준비위원이라는 패치가 전달되었으며, 박승하 원장은 교직원들의 가슴에 일일이 패치를 달아주며 격려했다.

9. 2012년 JCI 인증조사 요약집 발간



5월에는 '2012년 JCI 인증조사 요약집'이 발간됐다. JCI 재인증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요약집은 교직원이 숙지하고 있어야 할 항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핸드북으로, 직무별로 나누어 발간되었으며, 포켓에 쉽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제작하여 숙지항목에 대한 손쉬운 접근을 통해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10. JCI 재인증 조사 실시



JCI 재인증을 위한 조사가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다. JCI 재인증 조사를 위해 의료, 행정 분야에 총 4명의 조사자가 참석했으며, 의료·시설 등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4개월간의 자료를 검토하는 첫 번째 인증과 달리, 재인증은 1년간의 자료를 검토하며 첫 JCI 인증 때보다 훨씬 방대한 양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특히,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정 4판을 기준으로 한 재인증 조사가 이루어졌다.

11. JCI 재인증 획득



8월 중순, 박승하 원장은 JCI로부터 최종 인증획득에 성공했음을 알리는 이메일을 받았다. 고대병원이 국제수준의 환자안전과 의료질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받는 날이었다. 이에 23일에는 25개 의학 전문지 기자들을 초청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며, 재인증 획득을 대내외에 알렸고, 31일에는 기념행사를 갖고 JCI 재인증 획득을 자축했다.

혀가 부풀어 오른 마나히, 한국에서 만난 희망

[세계와 만나는 고대병원 1]

8살의 작은 소년이 지기에는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2011년 9월 희망TV SBS와 함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오지에서 만난 마나히(Manahy, 9세).

밀알복지재단 이동진료팀은 혀가 어른 주먹만큼 부풀어 오른 마나히를 만났다. 태어날 때부터 혀가 입 밖으로 나와 있었던 마나히는 성장할수록 혀도 부풀어 올라 말하는 것도 먹는 것도 힘들어졌다. 부풀어 오른 혀 위로 앉은 파리 등으로 추가 세균감염의 위험과 최악의 경우 설암일 가능성 가운데 한국에서의 치료를 준비하게 되었다.

사람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의 눈빛으로 엄마의 등 뒤에 숨는 마나히는 아홉살 밖에 되지 않은 작은 소년일 뿐이었다. 마나히가 살아온 삶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잘 먹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삶이었다.

밀알복지재단 이동진료팀은 부모님을 설득해 한국에서의 수술을 진행하던 중 동네 무당이 마나히가 마다가스카르를 떠나면 마을에 저주가 온다고 예언하여 그 권위에 눌러 한국행을 포기하기도 했었다.

그 후 2012년 3월 이동진료팀은 가족을 설득하기 위해 마나히의 가족을 방문했으며, 아프리카 오지 사람들이 수술을 통해 건강해지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등 마나히가 수술을 통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했다. 그리고 무당의 권위를 누르고 한국행을

결정하여 지난 7월 31일 마나히가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마나히의 상황을 알게 된 고대 안암병원은 국제진료센터와 이식혈관외과 박관태 교수(이식혈관외과)를 통해 마나히가 초청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초청장을 전달하고 병실비용과 수술 및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며 마나히 치료에 적극 나서고 있다.

7월 31일 입국하자마자 고대 안암병원에서 3차원 혈관CT촬영, 두경부 X-ray촬영, 각종혈액검사 등 정밀검진을 받은 마나히는 지난 8월 3일(금) 부풀어 올라 입 밖으로 튀어나온 혀 부분을 절제하고, 남은 부위를 봉합해 일반인과 비슷한 크기의 혀 모양을 갖게 됐다. 이 날 잘라낸 마나히의 혀 크기만도 일반인의 5배에 달할 정도로 큰 크기였다. 원인은 혈관과 임파선이 부풀어 올라 나타나는 혈관림파기형으로 추정되어, 정확한 진단명을 위해 병리과에서 잘라낸 부위의 세포조직검사를 해서 확진했다.

특히, 마나히의 경우 혀 이외에도 치료가 필요한 곳이 많았다. 커다란 혀 때문에 입을 계속 벌리고 있어 양쪽 귀에 심각한 중이염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청력도 상당히 떨어진 상황. 이비인후과 임기정 교수는 한쪽 귀의 염증을 수술했고, 추후 청력의 회복 여부를 지켜볼 계획이다. 또한, 심각한 혈뇨를 보이기도 해서 소아청소년과에서 신장 초음파를 비롯한 각종 검사 및 치료도 진행하고 있다.

수술을 진행한 성형외과 박승하 교수는 “수술은 잘 진행되었으나 어려서 혀가 커졌고 그 상태로 오랫동안 지냈기 때문에 턱관절과 치아가 많이 변형됐다” 라고 말하며 “현재는 턱관절 강직으로 입이 완전히 다물어지지 않으나 앞으로 성장하면서 현재보다 좋아질 것” 이라고 예상했다.

평생 돌출된 혀로 인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말하고 먹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던 마나히의 혀는 줄었으나 앞으로의 치료가 더 중요하며, 이 치료를 통해서 마나히도 다른 아동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날카로운 눈빛의 아프리카 작은 소년 마나히. 아무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고 두려움에 떨던 소년이 1차 수술 후 마음을 열고 있다. 이 소년이 따뜻한 눈으로 희망의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때이다. 

심혈관센터 김영훈 교수, 중국 대련대 의과대학 초빙교수 임명

[세계와 만나는 고대병원 2]

명실상부한 부정맥분야의 세계적 명의, 중국에 노하우 전수




심혈관센터 김영훈(金榮勳, 55) 교수가 중국 대련대학교 의과대학 초빙교수로 임명됐다. 기간은 2012년 7월 11일부터 5년간이다.

이번 임용은 김영훈 교수의 부정맥 치료 노하우를 높이 평가한 대련의과대학 부속 제1병원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향후 부정맥 치료를 위한 임상 및 연구분야 활동을 대련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할 예정이다.

김영훈 교수는 부정맥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심방세동 환자에 대해 국내 최초로 심방세동 전

극도자 절제술을 시행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최소화하고 치료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국내 부정맥 진단 및 치료에 새로운 장을 개척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김영훈 교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고, 아태부정맥학회 차기회장, 대한심장학회 홍보이사, 미국 심장학회 정회원, 고려대안암병원 부정맥센터장, 심혈관센터장 등을 맡아 맹 활약 하고 있다. 김 교수의 이번 대련의과대학 초빙교수 임명은 미국 메이요대 및 유타대 의과대학 교수들과 함께 3인이 동시에 됐다. 

세부로 여름휴가대신 의료봉사 떠난 사람들

[세계와 만나는 고대병원 3]

경기도 지원, 라파엘클리닉 인터내셔널 주관으로 다녀와 고대병원 의료진, 의대생, 교우 20명 빈곤층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실시



여름 휴가가 한창인 7월 말, 세계 최고의 휴양지인 필리핀 세부로 휴가를 반납하고 의료봉사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 고대 안암병원 내과 김창덕 교수, 임신영 전임의, 박성훈 전공의, 정형외과 박지현 전공의, 고대 안산병원 이비인후과 최준 전임의를 비롯해 교우인 강동성심병원 내과 엄중식 교수, 안과 김인숙 전문의(개업의), 의대생 12명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지난 7월 24일(화)부터 29일(일)까지 6일간 세부 빈곤층 청소년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라파엘클리닉 인터내셔널에서 주관해 이루어졌다.

6일간 진행된 이번 사업에서는 세부 민라날리아 지역에 가정형편이 열악한 학생들을 위한 기숙학교 'The Sisters of Mary Boystown, Girlstown' 학생 6,000여명을 대상으로 진료와 보건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사전 건강검진표 작성을 통해 전교생의 1/3에 약간 못 미치는 1,896명에게 내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진료를 실시했고, 그 결과 약 100여명의 학생에게는 안경이 필요하고,

40여명은 만성중이염으로 수술이 필요했으며, 선천성 심장기형인 학생도 1명이 발견됐다.

진료와 더불어 보건위생교육을 통해 올바른 손씻기와 이따기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졌다. 특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지원으로 100여만원 가량의 칫솔을 선물하며 직접 올바른 이따기 및 손씻기 방법에 대한 실습을 하기도 했다.

더불어 고려대학교병원에서는 100만원을 지원해 안경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안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의료봉사를 다녀온 고려대학교병원 내과 김창덕 교수는 "안경, 중이염 수술 등 어렵지 않은 사후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후속 관리까지 다 해줄 수 없어 안타까웠다"며 "다시 한 번 이 학생들을 찾아가 지속적인 진료와 건강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제 1회 KUMC-몽골 조인트 심포지움' 개최

[세계와 만나는 고대병원 4]

몽골 순환기학회 공식요청, 심장병 치료 및 시술법 전수 高大 임도선 교수팀, 몽골 최초, '경피적 승모판확장성형술' 시행



국립 샤스틴병원에서 '승모판확장'시술 성공, 국영방송 통해 몽골 전역에 방영

홍통클리닉 임도선(52, 林度善) 교수팀은 지난 7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몽골을 방문해 몽골 최초로 심장판막성형술의 일종인 '경피적 승모판확장성형술'을 시행했다.

몽골 울란바토르의 국립 샤스틴병원의 공식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경피적 '풍선도자 승모판 확장성형술(percutaneous mitral balloon valvotomy, PMV)'은 몽골 최

초로 이루어진 시술로, 임도선·안철민 교수의 시술장면이 몽골 국영방송을 통해 촬영, 몽골 전역에 방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임도선 교수팀의 치료를 성공적으로 받은 여성환자인 앙크체첵(32, Enkhtsetseg)은 좌심방의 피가 좌심실로 내려가지 못하는 심장병인 승모판협착증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승모판협착증은 심장판막인 승모판의 기능장애로 인해 좌심방 내압을 높여 좌심방의 피가 좌심방과 직접 연결된 폐정맥 속으로 역류함으로써 폐에 부종이 생기는 등 신체의 기능저하를 유발해 기침이나 호흡곤란, 각혈 등을 동반 증상이 심해지면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다.

한편, 이번 방문에서 고려대병원 홍통클리닉 임도선·홍순준·안철민 교수를 비롯한 6명의 의료진은 2012 몽골 순환기학술대회에서 '제 1회 KUMC-몽골 조인트 심포지움' 개최

좌장과 연자를 각각 맡아 초청강연을 실시했다.

심혈관질환 치료의 최신기법을 주제로 강연한 몽골 순환기학술대회에서는 몽골내 200여명에 달하는 의료진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한-몽 심혈관질환 치료에 대한 다 학제적 학술교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임도선 교수는 "열악한 몽골의 의료환경을 감안해 몽골내 심장병환자의 치료 뿐만 아니라 현지 의사들을 위한 시술법을 지속적으로 전수할 예정이다"라며 몽골 의료지원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다.

실제로, 이번 방문일정에서 몽골내 대표적인 종합병원인 송도병원(Songdo Hospital)병원장 및 최고경영자의 요청에 의해 임도선 교수팀은 중증심장병을 앓고 있는 만성완전색색 관상동맥 환자를 포함한 난치성 협심증 환자 등에 대한 치료와 의료진을 위한 시술법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임도선 교수는 지난 해 8월 '사단법인 심혈관 건강 증진 연구원'이라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 몽골, 미얀마 등 의료 낙후국가에 대한 의료진 및 환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활발히 수행해 의료계내외에서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생존의 고리가 심장마비 58세 女 살렸다

[스페셜리포트 1]

수영강사의 CPR - 빠른 119 도착 및 제세동 - 병원의 효과적 전문치료

고대병원 - 성북구보건소 - 지역의사회 - 119 - 시민단체, 협의체 구성
 성북구내 심정지 후 소생률 3.6% → 30%까지 끌어올릴 터



지난 7월 초, 수영장 탈의실에서 58세 여성이 갑자기 쓰러졌다. 쓰러진 여성을 목격한 수영코치는 즉각 119에 신고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재빨리 도착한 119는 제세동을 통해 멈춘 심장을 다시 살려낸 후 인근 고대병원 응급실로 신속하게 이송했다. 심장은 뛰지만 여전히 의식은 없는 상태. 고대병원에서는 저체를 치료할 포함한 '심정지 후 치료(Post cardiacarrest care)'를 실시했고, 이 여성은 현재 의식이 온전히 돌아와 퇴원했다.

하지만 이 여성처럼 심장마비 후에 온전한 정신으로 퇴원하는 경우는 전체의 1%내외에 불과하다. 병원 외에서 심장이 멈춘 환자의 10%가 병원에 살아서 입원하고, 그 중 3.6%만이 생존하여 퇴원하며, 그 중 온전한 정신으로 퇴원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처럼 심정지 환자가 건강하게 퇴원하기 위해서는 '생존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잘 연결되어야 한다. 생존의 고리란 심정지 환자가 '뇌'까지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할 단계로 ▲환자의 조기발견과 119 신고 ▲신속한 심폐소생술 ▲빠른 제세동 ▲119의 효과적인 병원이송 ▲적절한 심정지후 후처치 등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여성의 경우에도 심정지 이후에 ▲수영강사가 즉시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수영강사가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며 ▲119가 도착해 제세동을 실시해 심장을 다시 뛰게했고 ▲병원으로 즉시 이송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5단계의 생존의 고리가 잘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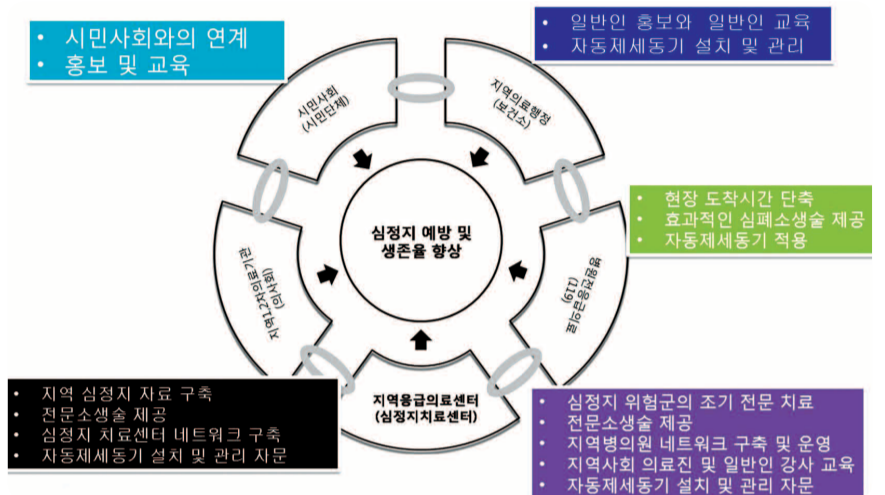
지역사회 및 구급대

병원의 목표 지향적 치료

<생존의 고리>

고대병원은 이번 경우와 같이 심정지 환자가 온전히 회복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성북구 관할 단체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 7월 지역구 보건소, 지역구 의사회, 119, 시민단체 등과 연합해 이미 수차례 회의를 실시했으며, 회의를 통해 협의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합의점은 이끌어낸 상태이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성북구 내에서 언제 어디서든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누구나 즉각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건소 및 시민단체는 일반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적극 교육하고, 지역의사회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머무는 지역 의료기관에 제세동기 설치를 지원 및 독려하고, 119는 환자를 신속히 이송할 것을 약속했다.



<지역협의체 구상안>

특히, 고대병원은 현재의 응급의학과, 순환기내과, 흉부외과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정지 치료센터'를 개설해 의료진에 따른 치료의 수준을 표준화하고, 전문적인 소생집중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의 생존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고대병원은 심평원 조사에서 급성심근경색 치료와 관련 1등급을 받은 바 있어 이 분야에 이미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심정지 치료센터가 개설되면 심정지 환자 치료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응급의료센터 이성우 과장은 "우리나라 심정지 환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낮은 생존율로 인해 예방 및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심정지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는 각 단위, 기관의 역할이 지역 기관으로 통합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대병원은 심정지 치료센터를 개설함으로써 풍부한 경험과 표준화된 진료절차, 집중 치료를 실시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려대학교병원은 원내 심정지 환자에 대한 처치 역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먼저 원내 심정지 환자가 나타나면 'CODE BLUE' 발령과 함께 즉각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전문 CPR팀이 '성인용과 소아용 처치 세트'를 갖고 심정지 환자에게 이동해 후속 처치를 진행한다.

전문 CPR팀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리더로, 순환기내과, 마취통증의학과, 기본인명구조술 지도자(BLS Instructor)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동의 경우 환자 주치의와 병동 간호사가 추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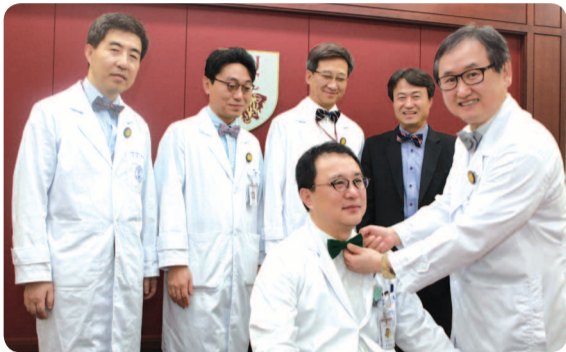
고려대학교병원 박승하 원장은 "고대병원의 응급의료체계 중 심정지 분야는 국제의료인증 JCI 평가단 역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며 극찬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원내 심정지 환자를 뛰어넘어 지역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이번 프로젝트에 적극 지원해 병원 안에서 뿐만 아니라 병원 밖에서도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대병원은 2009년 JCI 인증획득에 이어 2012년 제4차 최심 개정판에 의한 JCI 재인증 획득에 성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환자 안전 시스템과 의료 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이뤄가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센터는 의료진 손씻기를 비롯한 감염관리, 철저한 응급차량 및 내부 의료기기 관리, 안전한 환자의 관리, 급박한 순간에도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국제 수준의 응급환자 관리가 이루어짐을 인정받았다. 🏆

즐거움, 깨끗함 두 마리 토끼잡는 보우타이

[스페셜리포트 2]

박승하 원장, 전문의 전원에게 보우타이(나비넥타이) 선물하며 적극 권장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에 환자도 OK, 확실한 감염관리에 의사도 OK



고려대병원이 슈퍼박테리아 등 세균 감염의 온상인 의사들의 넥타이를 과감히 버리고, 보우타이(나비넥타이)를 착용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 나섰다.

박승하 원장은 가장 먼저 보우타이를 착용하고, 보직자


및 임상과장들에게 여러 종류의 타이를 선물하며 솔선수범을 보였다. 또한, 병원 마크를 새긴 와인색의 보우타이를 별도로 제작해 전문의 전원에게 선물하며, 보우타이 착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의사들의 넥타이는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MRSA)을 비롯한 각종 세균이 검출되며 병원 내 감염확산의 원인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영국에서는 2008년 넥타이와 긴소매 옷의 착용을 금지한 바 있다.

나비 넥타이를 맨 의사들을 보는 환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박승하 원장(성형외과)에게 양악수술을 받은 34세 여성 윤모양은 "진료실을 들어서는데 나비넥타이를 맨 교수님의 모습에 미소가 지어졌다. 세련되어 보이고 부드러워

보여 병원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줄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기형 진료부원장(소아청소년과) 역시 보우타이를 맨 이후 어린이 환자들에게 인기 최고가 됐다. 8살 이선우 군은 "의사 선생님이 나비 넥타이를 해서 안무서웠다"며 좋아하기도 했다.

박승하 원장은 "보우타이는 환자를 정중히 맞이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 친근하고 부드러운 의료진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고, "또한, 의사의 넥타이는 병원 곳곳을 다니면서도 잘 세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큰데, 보우타이를 하면 세균 감염을 줄일 수 있다. 앞으로 병원 내 철저한 감염관리를 위해서라도 보우타이 착용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준공

[스페셜리포트 3]

'국내 최고의 인텔리전트 의학교육 및 연구 빌딩' 완공 의학 · 바이오 · 의공학 · IT 잇는 국내최대 연구중심 의대로 탈바꿈 추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한희철)이 본관 건물을 완공하고 7월 10일 오후 3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2층 유광사홀에서 '고대의대 본관 준공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병철 고려대학교 총장, 김린 의무부총장, 한희철 학장, 이양섭 고려대학교 교무회장, 김정묵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무회장, 유광사 전 고대의대 교무회장,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 등을 비롯한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하3층 지상 7층, 연면적 21,561㎡(약 6,523평)규모로 건축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은 국내 최고의 유비쿼터스환경을 실현한 인텔리전트 건물이다. 첨단 무선통신 및 인터넷은 기본이고, 기온에 따른 인공지능 건물관리가 가능하며, 자연채광과 자동 환기 시스템까지 갖춰 자연 친화적으로 건축됐다.

건물 내부에는 의학연구지원센터, 줄기세포실험실, 대형연구과제센터, 실용해부센터, 실험동물연구센터를 비롯한 연구공간과 다양한 실험실, 세미나실 등을 교수학습지원센

터, 학사지원부, 의무교학팀, 대학경영팀 등 각종 행정파트와 의 원활한 공조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 및 연구 수요자 중심의 동선을 최대한 살려 공간을 배치했다. 또한, 장성훈 강의실, 문영목 강의실, 최종욱 강의실, 유영 강의실, 이상호 강의실, 남경애 강의실, 39회 강의실, 40회강의실, 44회강의실, 관보(김정묵) 라운지 등의 강의실은 고대의대를 사랑하는 교수들의 고귀한 뜻을 살려 명명했다. 접근성이 좋은 의대본관 로비에는 고대의대 교무회장을 역임한 유광사(70, 의학27회)원장의 30억원 기부로 탄생한 강당인 유광사홀(290석)은 국제학회를 개최하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의 최신설비를 갖췄다.


김재호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의과대학은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큰 자랑거리다. 의학 분야에서 인촌 선생의 공선사후 정신을 실천한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로 국민 건강을 개선하고 보건 수준을 향상시켜왔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세계 의학계를 이끌어나가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려중앙학원도 의과대학의 발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총장은 식사를 통해 "의과대학과 의료원의 발전은 본교 대도약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자 가장 우선적인 추진 과제 중 하나로서 본교는 혁신을 통한 비약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의료원 발전 마스터플랜을 진행 중에 있다"며 "오늘 의과대학 본관 준공으로 마련된 새로운 교육기반이 의과대학 학생들의 실력 향상과 부속병원의 진료 역량, 연구소의 연구 역량 강화로 이어져 본교가 의학계열 인재 육성의 요람

으로서 더 큰 명성을 얻는 전환점으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김린 의무부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학연구와 교육의 핵심이자 의사 양성의 요람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본관 준공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보이는 것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과대학 본관 내에서 펼쳐질 뛰어난 연구 및 교육환경은 고대의대의 가치를 더욱 드높이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희철 학장은 "생동감 넘치는 의학교육, 연구를 할 수 있는 역량 확보, 의학도서관의 디지털화를 비롯해 의대생들의 실기교육(OSCE와 CPX)강화 및 E-Education 등을 적극 활용해 의대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선진 의학교육을 꾸준히 실천하고자 한다"며 "무엇보다 연구부문에서 기초와 임상의 조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트워킹을 통한 연구에 있어서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대의대는 이번에 준공한 본관건물 옆에 제 2의학관을 건축할 예정이며, 올해 10월에 공사를 시작해 내년 말 완공된다. 지상 7층 규모로 설계진행 중인 이 공간은 연면적 7569.56㎡(약 2,290평)로, 완공 후 구 의대건물(제1의학관)과 함께 국내 최고의 메디컬컴플렉스 단지로 재탄생 될 전망이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이번 본관 신축을 통한 시설인프라 확충을 밑거름 삼아 R&D 강화,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공격적인 연구 활동을 지속해 연구중심 대학으로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고대병원-성북소방서, 제1회 구급활동 품질 관리 간담회 개최 성북소방서 모범 구급대원 표창 전달



고려대학교병원은 지난 8월 29일(수) 오후 1시 중회의실에서 '성북구 구급품질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응급의학과(과장 이성우)와 성북소방서 주최로 이루어진 이번 간담회는 성북구 내 심정지 예방 및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된 지역사회협의체 정기모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고대병원은 이날 모범 구급대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했다. 표창은 적극적으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구급활동일지'와 '심폐정지 세부상황표' 등 기록을 잘 남긴 구급대원에서 전달됐으며, 돈암 119 안전센터의 이명우 일급응급구조사와 장위 119 안전센터의 안지현 2급 응급구조사가 표창을 수상했다. 🏆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고대병원과 서울 성북경찰서(서장 임용환)는 6월 29일(금) 낮 12시 본부회의실에서 '주폭(酒暴)적결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 협약식을 거행했다.

이번 협약은 술에 취해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대병원은 협약서를 통해 ▲알콜 중독치료 등 상습주취자 재활 및 사회복지 협력 ▲감면 등을 통한 치료비 본인 부담 최소화 적극 협력 ▲각종 자체 소식지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

친절리더, 식후 냉커피 대령이오~



친절리더는 지난 8월 14일(화) 점심시간 직원 식당 앞에서 식후 냉커피를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친절리더는 무더위에 병원에서 열심히 근무한 교직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마지막 무더위를 떨칠 수 있도록 달콤하고 시원한 커피 1,000여잔을 전달했으며, 직원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커피가 조기에 소진되기도 했다. 🏆

CODE PINK : 우리 아이가 사라졌어요!



고대병원은 지난 7월 11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2012년 소아 유괴 및 실종 가상 훈련 시나리오'를 실시했다.

이번 모의 훈련은 소아의 유괴 및 실종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원아동 실종에 대한 2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실전과 동일한 상황을 연출하며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은

사고 발생신고, 사고 접수, 상황 전파, 상황 조치 등 행동 요령에 따라 이뤄졌다. 우선, 사건이 발생하면 안전요원실에 사고 발생을 알리고 사건 일시, 장소, 인적사항, 인상착의 등을 접수한다. 사고를 접수한 안전요원은 전 안전요원에게 연락, 코드 핑크(CODE PINK)를 방송하면서 OCS로 유괴범 또는 실종아동 인상착의를 공지한다. 이어 유괴기관 통보,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 및 중앙감시실 업무협조를 요청한다. 더불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근무 운영체계를 변경하고 초동 조치반을 운영하며, 출동 경찰관의 범인 인계를 돕는 방식이다. 🏆

무더위에 벌써부터 지치면 아니아니 아니되오!



고려대학교병원이 무더위에 지친 교직원들에게 시원한 수박을 선물했다. 병원은 초복인 7월 18일(수), 전 부서와 교직원들에게 300여개의 수박을 전달하며 더위와 JCI 인증준비로 바쁜 교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간호부, 영광고등학교 '간호사' 진로체험교실 실시



간호부(부장 이은숙)는 지난 7월 12일 오전 11시부터 영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에 대한 진로체험교실을 실시했다.

간호부 한지연 교육간호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진로체험교실은 '간호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의 역할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

업전망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

병원 속 쉼터, 햇살나눔공원 아세요?



더위가 한풀 꺾여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잠시 쉬었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이즈음, 고대 병원 안에 한숨 쉬어갈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나타났다. 최근 대형 파라솔과 테이블이 놓이면서 햇살이 다소 따사로운 시간에도 시원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많은 환자와 교직원들이 찾게 된 곳, 바로 햇살나눔공원이다.

4층 심혈관센터로 나가는 문을 통해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다보면 햇살나눔공원이 나타난다. 이 공원은 동쪽을 향해 있어 이름처럼 햇빛이 잘 들고, 지대가 높아 앞이 탁 트여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날씨가 맑은 날은 멀리 무역센터까지 훤히 보일정도이다.

휠체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길이 보도블록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 사시사철 푸른 나무들과 울창한 등나무도 운치를 더한다. 특히 최근에 설치된 대형 파라솔 덕에 다소 부족했던 그늘과 앉아서 쉴 공간이 생기면서 병원을 찾은 환자, 보호자 뿐만 아니라 교직원, 의과대학생 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박승하 원장은 "햇살나눔공원은 정말 멋진 공간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충분히 즐기 못하고 있어 안타까웠다"며 "편의시설을 확충했는데,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곧 다가오는 청명한 가을, 가까운 곳에서 높고 푸른 가을 하늘과 탁 트인 서울 경치를 즐기고 싶다면 햇살나눔공원에 한번 둘러보는 것은 어떨까? 🏆

호흡기내과 유세화 교수 정년퇴임 "후학양성과 의학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의학발전기금 2천만원 기부 선행"




호흡기내과 유세화교수가 정년 퇴임했다. 지난 8월30일(목) 오전 8시에 의대본관 유광사홀에서 내과 학 교실 유세화 교수의 정년퇴임식을 거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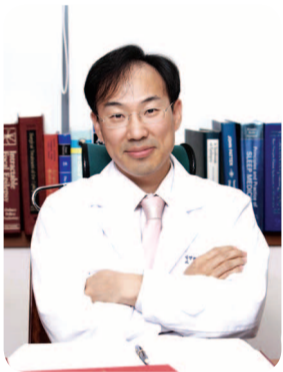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정년퇴임을 맞이한 유세화 교수를 비롯한 김린 고려대의료원 의무부총장, 한희철 의과대학장, 박승하 안암병원장 등 20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행사는 ▲정년퇴임 교수 약력소개 ▲김린 의무부총장 감사말 ▲박승하 원장의 감사말 ▲한희철 학장의 송별사 ▲감사패 및 기념메달 증정 ▲퇴임사 ▲꽃다발 증정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행사 내내 뜨거운 박수로 유세화 교수의 퇴임을 축하했다.

유세화 교수는 퇴임사에서 "의과대학과 안암병원에서 33년이 넘는 재직 기간 동안 많은 역량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부족한 저를 도와 함께해 주신 동료 선·후배 교수님들을 비롯한 병원식구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며 "의과대학과 고대병원이 의대본관 완공과 JCI 재인증 등을 계기로 크게 성장하고 더욱 발전할 것을 확신하며 응원하면서 떠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고 퇴임사를 전했다.

유세화 교수는 197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1981년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의대 내과 임상강사로 근무했으며, 1979년부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임상강사로 교직을 시작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주임교수, 내과계열 대학원 주임 교수 ▲안암병원 호흡기내과 과장, 내과과장, 호흡기센터장, 건강증진센터장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회장, 대한폐암학회 회장, 대한내과학회 회장 ▲Asian Pacific Society of Respiriology의 이사, Respiriology Journal의 Associate Editor ▲한국의학교육학회 전문위원, 학회지 편집인 ▲정부출연 기관, 근로복지공단,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의 위원,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국내·외 의학발전과 국제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에 공로를 인정받아 1989년에는 유한결핵 및 호흡기학술상을 수상했으며, 2011년에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경과 연구팀, 각종 학회서 우수한 연구업적 인정



신경과 정기영 교수팀이 각종 학회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먼저 정기영 교수는 지난 6월 30일(토)에서 7월 1일(일)까지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9회 대한수면연구학회 학술대회'서 'JW 중외학술상'을 수상했다. JW 중외학술상은 최근 2년간 수면분야 연구에서 연구성과가 우수한 연구자에게 주는 상이다.

이번에 연구성과를 인정받은 논문은 ▲ Prevalence of sleep-disordered breathing in acute ischemic stroke as determined using a portable sleep apnea monitoring device in Korean subjects(이동형 수면무호흡 진단기기를 이용한 급성 허혈성 뇌졸중에서 수면무호흡증의 유병률) ▲Electrophysiologic disturbances during daytime in patients with restless legs syndrome: further evidence of cognitive dysfunction(하지불안증후군에서 주간 전기생리학적 장애: 인지기능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Increased Corticomuscular Coherence in Idiopathic REM Sleep Behavior Disorder(렘수면행동장애에서 증가된 피질-근육 신호 결속) 등이다.

특히, 정기영 교수는 하지불안증후군에 대한 인지유발전위 연구를 통한 인지기능장애를 규명하고, 퇴행성 뇌질환의 중요한 전구증상인 렘수면행동장애의 발생기전을 뇌파분석을 통해서 제안한 논문을 최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50여편의 국제저널에 논문을 출판하였

으며, 수면 및 뇌전증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한 바 있으며, 현재 하지불안증후군에 대한 병태생리연구를 중형국책연구과제를 지원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석사과정 김성민 학생 역시 이번 학회에서 '우수포스터발표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An ERP study on working memory in patients with restless legs syndrome(하지불안 증후군 환자에서 작업 기억에 대한 사건유발전위 연구)'이며,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와 정상인의 인지유발전위를 비교하여 하지불안증후군이 작업 기억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하지불안증후군이 전두엽장애를 초래한다는 또 하나의 증거를 밝혀냈다.

더불어 이혜미 전공의(3년차)는 6월 23일(토) 중앙대 약학대학원 R&D 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다발성경화증학회'에서 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연제는 'Tumefactive Lesion Diagnosed as Demyelinating Disease or Brain tumor: two cases(탈수초 질환 및 뇌종양으로 진단한 종양성 병변 2예 보고)'로 뇌종양으로 생각하였으나 탈수초 질환으로 진단한 증례와 염증성 탈수초 질환으로 생각하였으나 후에 뇌종양으로 진단한 종양성 병변을 보고했으며, 임상경과 및 영상소견 추적 관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종양성 탈수초 병변이란 2cm 이상의 경계가 명확한 국소적 탈수초 병변을 말하며, 뇌종양, 뇌졸중, 뇌농양 및 결핵종 등과 감별 진단이 어려울 수 있고, 임상양상과 영상소견, 때로는 조직 병리학적으로도 구별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원인 질환에 따른 치료 및 예후가 달라 감별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소아청소년과, 연이은 수상에 '쾌재'




소아청소년과 천식 및 알레르기팀이 최근 뛰어난 연구실적으로 각종 수상을 휩쓸고 있다. 수상자는 바우어, 윤원석 교수와 박하늘 전공의로, 이들은 유영 교수의 지도아래 발군의 실력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이 수상한 젊은 연구자상은 교수가 아닌 전 세계 연구자중 연구성과가 뛰어난 사람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 의미를 더한다.

소아청소년과 바우어 교수(Siegfried Bauer)는 지난 5월 26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가 공동 제작하는 학술지 AAIR(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에서 수여하는 젊은 연구자상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바우어 교수는 메타콜린 유발검사에 따른 기관지 확장 반응성을 조사하고 천식 환아에서 임상적 파라미터에 따른 기관지 확장 반응성의 차이를 확인한 논문(Assessment of Bronchodilator Responsiveness Following Methacholine-Induced Bronchoconstriction in Children With Asthma)을 발표했다. 논문을 보면,

천식 환아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에 대한 기관지 확장 반응은 천식약 처방과는 관련이 없지만 아토피와 말초 혈액 호산구 증가증에서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영 교수와 공동 연구 및 논문을 집필한 고대 생명공학과 윤원석 교수 역시 지난 5월 17일에서 19일까지 3일간 열린 제8차 아시아소아과학연구학회 학술대회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윤원석 교수는 소아알레르기환자 혈액의 CCL22 케모카인의 발현정도를 비교하고 질환과 케모카인의 발현양상을 비교평가한 '알레르기비염에 대한 CCL22 siRNA의 치료효과연구(Therapeutic Effects of CCL22 SiRNA in Mice with Allergic Rhinitis)'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혈액의 CCL22의 발현을 조절하는 CCL22 siRNA를 전달하는 생물의약품을 개발해 이를 투여할 경우 CCL22의 발현이 억제되고 알레르기비염 동물모델에서의 치료효과를 확인했다.

이밖에도 동일 학회에서 박하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박하늘 전공의는 14개월 여아에서 발생한 급성 호산구성 폐렴 1례(Idiopathic acute eosinophilic pneumonia in a 14-month-old girl)를 발표, 일반적인 폐렴과 구분이 어려워 폐렴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아의 경우 폐 조직 및 기관지폐포세척액 검사 등 추가적 검사가 필요함을 입증했다. 

만병의 근원, 환절기 감기 주의보

[건강정보 1]

1주일 넘기면 폐렴, 중이염 등 합병증 조심 증상 비슷한 알레르기성 비염 및 쯤쯤가무시병 등 가을철 열성 질환 주의해야



요즘처럼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환절기에는 심한 일교차, 일조량의 감소, 건조한 공기 등의 환경 변화에 몸의 감각 기관, 자율 신경, 호르몬 기관이 재빠르게 적응을 하지 못해서 피로감, 저항능력 감소로 감기에 쉽게 걸릴 수 있어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감기의 원인은 바이러스

감기의 원인은 바이러스다. 감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는 약 100여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가장 흔한 것은 콧물 감기를 일으키는 라이노 바이러스다. 이 감기는 비교적 증상이 가벼워 대부분 저절로 낫고 지나간다. 하지만 바이러스 종류가 다양한 만큼 경우에 따라 증상이 꽤 심해서 고열에 온몸이 땀이 뻘뻘 아파고, 입안이 허는 구내염을 동반하기도 한다. 저항력이 좋아 가볍게 넘긴다면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신체 저항력이 떨어져 있다면 큰 병이 되기 쉽다.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보통 1주일 내 회복, 심하면 합병증 유발


감기는 보통 별다른 후유증 없이 1주일 이내에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감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소홀히 하면 합병증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한다. 감기의 3대 합병증으로는 중이염, 축농증, 기관지염을 들 수 있고, 이밖에도 폐렴, 뇌막염 등 다양한 질환이 감기 증세로 시작될 수 있다. 또한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기관지 확장증 등

만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감기에 걸리면 증상이 더 악화되고,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때로는 생명이 위독한 질환이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악화 시에는 항상 합병증이나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평소 체력관리와 철저한 손씻기로 감기 예방

바이러스의 침입을 받더라도, 몸의 저항력이 낮을 때 감기에 걸리기 쉬우므로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신의 체력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평소 물을 많이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생선·계란·콩 등과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스트레스, 과로, 불량한 영양상태, 흡연, 차갑고 축축한 날씨, 사람이 밀집해있는 환경은 감기에 걸릴 위험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 과로, 과음, 지나친 흡연 등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평소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으로 체력을 키우고, 감기에 걸린 사람과의 신체접촉은 가급적 피하고, 손을 철저히 자주 씻는다면 감기에 걸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증상은 비슷하지만 감기가 아닌 질환 조심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오인되기 쉬운 질환으로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 발작적으로 코안이 가렵거나 연속적으로 재채기를 하고 맑은 콧물이 쉴 새 없이 흐른다면 알레르기성 비염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온과 습도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증상이 악화되고 환절기에 심해지기도 해 감기로 오해받기 쉽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포자, 동물의 털·오줌 등이 주원인이기 때문에 담요, 양탄자, 소파, 봉제인형 등을 철저히 차단해야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다. 

도움말 | 가정의학과 고병준 교수

흰 다리 걱정 끝! 이제 미니스커트도 당당하게!

[건강정보 2]

내반슬 환자 3년새 2배 증가! 근위경골절술(HTO)로 완치 가능



종로구에 사는 대학생 임미현(22)씨, 한창 멋 부리고 싶은 나이이지만 그가 반바지나 여타의 미니스커트를 피한다. 바로 '오자형 흰 다리'라 불리는 내반슬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내반슬은 말 그대로 다리 관절이 정상적이지 않고 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건강관리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반슬을 포함한 무릎수술을 받은 환자가 3년 새 2배 가량 늘었고, 여성이 남성보다 10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만년 콤플렉스 '흰 다리', 조금 더 확실한 치료법은 없을까?

◆ 내 다리, 흰 다리일까?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자신의 다리가 휘었는지를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 내반슬의 발생요인은 선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잘못된 자세로 인해 후천적으로 발병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다리가 휘었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자가 진단법은 이렇다. 발목에서 내측 복숭아 뼈를 밀착시키고 두 발의 앞 끝부분이 서로 닿게 두 발을 모은 상태로 똑바로 선 상태에서 양 무릎 사이가 벌어지고 무릎 앞에 있는 슬개골이 안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오자형 흰 다리'다.

◆ 흰 다리...절골술로 완벽 교정한다!

흔히 시중에서 통용되는 교정법은 효과가 없다. 흰다리는 보조기 등의 교정 방법에 의해 호

전되지 않는다.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대로 방치한다면 미관상 이유뿐 아니라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돼 퇴행성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 동시에 내측구획에 국한된 무릎 통증 등 신체적인 고통이 동반된다. 퇴행성관절염은 보통 60대 이상 장년층에서 발생했지만, 요새 들어 50대의 중장년층에서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직업적 환경, 외상에 의한 관절 손상, 과도한 운동 등의 이유로 젊은 나이에 관절이 노화 손상되기 때문이다. 흰 다리도 대표적인 이유에 속한다.

흰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수술법이 동반돼야 한다. 근위경골절골술(HTO)가 바로 그것이다. 근위경골절골술이란 종아리 안쪽 뼈(피질골)를 인위적으로 절골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무릎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옮기는 교정술이다. 이는 관절염이 있는 슬관절의 내측에 집중된 체중의 부하를 외측으로 분산시켜 통증을 감소시켜준다.

입원기간은 보통 5~7일정도 소요된다. 회복은 개인적인 편차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1주일 이내 보조기 착용을 통한 부분 체중 부하 보행이 가능하다.

한승범 교수는 “근위경골절골술 종류는 무릎 안쪽 뼈를 잘라서 안쪽을 벌려주는 방법(개방형)과 바깥쪽 뼈의 일부를 쪼개 모양으로 잘라 바깥쪽으로 닫아주는 방법(폐쇄형)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이 수술은 미용적인 측면에서 치료를 원하는 환자 중 내반슬 정도가 심하거나 슬관절에 통증을 느끼는 젊은 층 환자의 교정에도 자주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어 “내반슬은 미용상 문제뿐 아니라 만성피로와 요통, 관절염 같은 이차적인 질환의 원인이자 꼭 치료 받아야 하는 질환”이라며 “수술 후에는 쭈그러 앉거나 관절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도움말 | 정형외과 한승범 교수

수술 불가능한 대장-직장암환자, 암 제거하고, 항문까지 살려내

[건강정보 3]

고령자 조기회복프로그램, 항문 보존 등 환자 삶의 질 위해 최선



42세 남성의 직장암 수술. 10개월 전 이미 직장암 판정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수술을 권유받았던 이 남성은 수술을 거절하고 다른 치료법을 찾다가 암을 키웠고, 결국 전립선까지 침윤(혈액을 타고 다른 장기로 옮기는 전이와 다른 개념으로 암이 커져 붙어있는 주변장기로 뚫고 들어가는 것)되어 대소변 배출이 힘들어질 정도로 암이 커진 후에야 다시 병원을 찾았다. 더군다나 처음 진단 때 함께 발견되었던 우측대장암도 더욱 커진 상태.

그러나 이 남성의 경우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직장암이 커진 상태였다. 특히, 이미 다른 병원에서는 이 남성에게 어떤 수술방법이든 항문을 살릴 수 없다고 설명한 상황. 하지만 이 남성은 항문을 살리지 못한다면 어떠한 수술도 받을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했다. 고대 안암병원 대장항문외과 김선한 교수는 수술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복강경 수술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복강경으로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암 조직과 떼어낼 주변 정상조직 사이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남성은 여성보다 골반이 좁아 공간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 남성처럼 암 크기가 크면 복강경이 들어갈 공간이 전혀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좁은 공간에서 복강경으로 무리하게 암을 박리하려고 힘을 주다가는 딱딱한 암과 골반뼈 사이에서 기구가 부러지거나 망가질 위험까지 있다. 더군다나 암이 침윤된 전립선까지 함께 제거하고 방광을 요도에 연결하는 것은 복강경 수술로는 불가능했다. 개복수술로는 명치부터 절개해 큰 흉터가 남는 것은 물론이고, 항문

을 살리기 어려웠다. 항문을 제거하면 환자는 평생 배설주머니를 차고 다녀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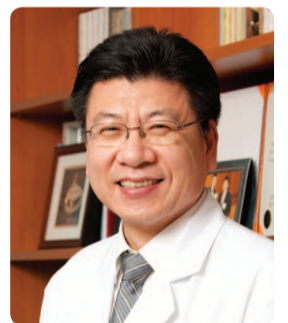
김선한 교수는 로봇수술을 택했다. 먼저 비뇨기과 천준 교수가 로봇으로 전립선에 침윤된 암을 제거한 후, 김선한 교수가 역시 로봇으로 좁은 공간에서 직장암을 제거하고, 다시 복강경으로 우측 대장암을 절제해냈다. 이 40대 남성은 암을 모두 제거하면서도 요도와 항문은 제거하지 않은 채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고 있다.

최근 있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우리나라 3대 암의 수술 성적 평가에서 고대 안암병원이 1등급을 받으며 국내 최우수병원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와 같은 어려운 수술들의 성공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장-직장암 수술 권위자 김선한 교수는 국내에 개복수술이 보편적이던 시절, 미국서 복강경 수술을 배워 현재까지 복강경으로만 2,000여명 이상의 암환자를 집도했으며, 2007년부터는 보다 정교한 로봇수술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로봇수술 분야 역시 수술용 로봇 다빈치의 제작회사에서 직장암 로봇수술방법으로 김 교수의 수술법을 영상으로 찍어 소개하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수술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 국제학회나 해외병원 초청으로 수술시연(Live Surgery)을 20여회 실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복강경 대장-직장암 수술 후 조기회복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보통 고령자는 만성질환이나 면역력 약화, 수술 합병증 등을 이유로 젊은 사람보다 수술 회복이 더딜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1년 6개월 정도 김 교수에게 수술 받은 고령자 3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회복 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

김선한 교수는 "대장-직장암은 평균적으로 1기엔 95% 이상이, 3기에 치료해도 70% 이상이 생존할 정도로 생존율이 높다. 또한, 고대병원에서는 5년 생존율이 2기 95%, 3기 90%이상일 정도로 높다. 그러나 항문을 제거한다고 하면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들이 있어 안타깝다" 며 "단순히 생존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항문을 최대한 보존하고, 고령자에게도 빠른 회복과 퇴원을 돕는 등 수술 후 환자의 삶을 질을 높이는 것이 의료진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고 강조했다. 📌



김선한 교수

파킨슨병 심해도, 3D 입체영상 보는데는 불편함 없어

[건강정보 4]

고대의대 연구팀, 3D TV시청과 건강간의 상관관계 밝혀내

신경과 박건우(朴健雨, 50)교수팀은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3D TV 시청 안전성에 관한 연구에서, 파킨슨병 환자처럼 뇌의 인지 기능이 감소한 환자의 경우 3D 입체영상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지만, 입체영상을 보는데는 불편함이 없다고 밝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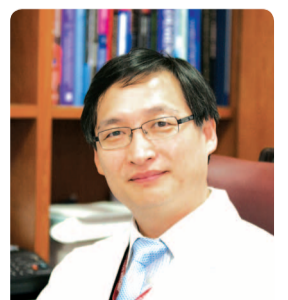
연구는, 파킨슨병환자 49명과 정상인 28명을 대상으로 입체를 인지하는 정도와 시청 불편감을 조사했다. 그 결과, 시청 불편감은 정상인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었다. 즉 파킨슨병 환자군은 입체 인지정도가 감소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것이 시청 상의 불편감을 유발하지는 않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박건우 교수는 "최근 노인인구가 증가 하면서 치매, 파킨슨병과 같은 만성적 뇌질환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런 환자들이 3D입체영상을 보는데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며 "다만, 뇌의 인지기능이 감소하면 입체시를 구성하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3D를 입체적으로 인지하는 능력은 다소 떨어지게 된다" 고 말했다.

향후, 박건우 교수팀은 치매환자 및 뇌전증환자의 시청 안전성에도 연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고려대 안산병원 정신경강의학과 고영훈 교수팀은 '장기적 3D TV 시청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을 주제로 연구중에 있다.

한편, 3D TV 시청에 대한 안전성 연구는 2010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3DTV 시청안전성협의회를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이 지난 2년간 매년 발표되고 있다.

이 권고안은 3D TV 방송진흥센터 홈페이지(<http://3dtkorea.or.kr>)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박건우 교수

고려대학교 학생 자원봉사 소감문

[자원봉사자 소감문]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에 사는 나는 항상 주위에서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았지만, 한 번도 발벗고 의료 봉사활동을 해본적은 없었다. 외국에 사는 나에게 이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학생 자원봉사활동은 한국에서의 첫 봉사활동이었고 장래에 의사가 꿈인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이번 학생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가 무엇인지 몸소 느껴보지 못한 나에게 새롭고 묘한 경험을 주었다.

내가 17년 전에 태어났던 5층의 신생아분만실을 지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의료사회사업팀으로 들어갔다. 다행히도 거기 계시던 선생님들은 내가 생각했던 의사들의 딱딱하고 차가운 말투가 아닌 상냥하고 친절하게 나를 맞아주셨다. 제비뽑기를 해 각자 일할 부서가 지정됐는데, 나는 건강관리실의 금연 캠페인에서 일하게 되었다. 병원 안에서 봉사하며 의사선생님들과 이야기도 하고 의사라는 직업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 체험해보고 싶었던 나는 금연 캠페인을 뽑았을 때 잠깐 실망했지만, 이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물론 내가 기대했던 활동이 아니지만, 어떤 경험이든지 최선을 다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 믿었다.


내 임무는 병원 주변을 돌아다니면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분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었다. 첫 날부터 담당 선생님께서 친절하고 재미있게 지도해주셔서 정말 즐겁고 편했다. 금연 홍보 피를 어깨에 찬 나는 뭔가 된듯한 자부심에 가슴이 설레었다. 처음에는 흡연하는 어르신들에게 쉽게 다가가서 말을 걸지 못했다. 그러나 이내 내 한마디가 흡연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 할 수 있었다. 하루에 병원을 2~3바퀴 돌면서 금연캠페인을 통해 병원을 좀 더 깨끗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과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흡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진정 봉사활동의 보람을 느낀 것은 바로 봉사활동 3일째인 수요일이었다. 어느 때와 같이 나는 초록 재킷을 입고 햇살나눔정원 근처를 순찰하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아저씨께서 나와 내 파트너 송희에게 이리 와보라며 손짓하셨다. 그 아저씨께서는 우리에게 어디 사느냐, 어느 학교에 다니냐, 몇학년이냐 등 여러가지를 물어보셨다. 처음에는 조금 의심스러웠지만, 곧 그 아저씨의 상냥함에 어색함이 사라졌다. 나는 아저씨에게 “아저씨는 왜 항상

밖에 나와 계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여쭙보았다. 그러자 아저씨께서는 “안에 있으면 답답하잖아... 말 할 사람도 없고...” 라고 가볍게 웃으며 대답하셨다. 그리고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표정으로 우리를 보시며 “너희들도 우리 아들 딸 같이 참 멋있고 이쁘네...” 라고 말하시고는 아들 딸 사진도 우리에게 선뜻 보여주셨다.

그제서야 나는 봉사활동이 무엇이고 어떤 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진심으로 깨달았다. 단 10분, 20분이라도 혼자 계시는 외로운 환자분에게 다가가 말동무가 되어주며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단지 흡연 자분들에게 경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 잠시 입원하는 기간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외롭게 지내시는 그 아저씨와 서로 대화하는것 만으로도 그 분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었다. 금연 캠페인에서 일하는 내가, 꼭 금연 캠페인에서 일하는 학생이 아닌 혼자 계신 환자분의 아들같은 말동무가 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고 살면서 앞으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와 보람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아저씨가 돈은 많이 없어도 이걸로 음료수 하나씩 사먹어.” 아저씨께서는 우리가 떠나려 할 때 5천 원을 손에 쥐어주시며 내일도 또 오라고 말씀하셨다.

고려대학교 학생 자원봉사 활동은 낯선 한국에 대한 나의 두려움을 없애주었고, 자원 봉사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꼭 돈을 기부하거나 무엇을 주는 것보다 단지 대화만으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것이 더욱 더 의미있는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담배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에게 흡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잠시나마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료사업팀 선생님들, 그리고 어리지만 책임감 있는 송희와 함께 일했기에 더 좋은 추억이 아니었나 싶다. 

글 | 자원봉사자 김진연 학생

*김진영 학생은 7월 23일부터 일주일간 건강관리실에서 금연캠페인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길이 열리고 있다

[여행정보]

길이 열리고 있다.
 걸어서 걷는 길이.
 자동차 문명이 들어온지 몇 십년 일텐데... 그 몇 십년동안 잊고 산게 너무 많다.
 자동차 위주로 생활하다 보니 가끔 인간이 걷는 동물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산 건 아닐까.
 불과 수 십년의 세월동안 마을을 이어주는 길들이 시멘트와 아스콘으로 바뀌었고 신작로가 포장되면서 국도 확포장으로 얼마나 많은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길과 마을들이 사라졌는지 사람들은 모른다.

우리 삶의 조건과 형식들을 되돌아 보는 길
 정상으로만 오르려하는 정복의 산행 문화를 바꾸는 길
 도시와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정겹게 나눌 수 있는 길
 묵묵히 걸으면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여정을 되짚어 보는 길

길이 열리고 있다. 둘레길, 나들길, 풍경길, 올레길, 봄내길, 바람길.. 등

저마다 공식이름을 가진, 거리와 테마가 정해져 있는 정식 걷기여행 루트 중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단장해 새 길이라고 부를 만한 곳들을 모았다.

1. 탁 트인 피산호를 감상하며 걷기 좋은 충북 괴산의 '산막이옛길'
2. 아담한 숲과 광활한 갯벌이 숨바꼭질하는 인천 강화 '강화나들길'
3. 강원도의 산천답게 자연적이며 인간친화적인 트레킹 코스 '바우길'
4. 충주호와 남한강, 계명산 등 천혜의 아름답고 수려한 자연경관의 '충주 풍경길'
5. 제주의 아름다운 바다와 오름, 돌담, 꽃지왓, 사시사철 푸른 들, 평화로운 마을을 품고 있는 제주 올레길
6. 3개도와 5개시.군, 16개읍면 80여개 마을을 잇는 300여km의 장거리 도보길 '지리산길'
7. 의암호, 소양호등 춘천의 명소를 걷는 '춘천 봄내길'



저마다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 숲, 바다, 강, 호수 근처 걷기 코스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사색에 잠긴다면, 오롯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다는 연유와 함께 화사한 꽃향기와 바람을 벗 삼아 걸아보기 바란다.

글·사진 | 조규은 원대기자(중합건강진단센터)

고려대학교병원 진료시간표

* 선택진료 의사 | 대표번호·전화예약 1577-0083 | 인터넷 예약 http://anam.kumc.or.kr | 응급의료센터 02)920-5373

2012년 09월 04일 현재

과 별(전화)	의 사 명	오 전	오 후	전 문 진 료 과 목	과 별(전화)	의 사 명	오 전	오 후	전 문 진 료 과 목				
소화기센터 3층 ☎6551	*류 호 상 덕	화,목	화,목	간질환, 위장관질환	성형외과 3층 ☎5440	*박 덕 선	월,금	월,금	귀성형, 손저림증, 화학박피				
	*김 창 덕	수,금	월,목	담석, 담도암, 췌장암, 췌장염		*안 덕 선	수	수	소아기형, 안면마비, 레이저박피, 턱성형				
	*엄 순 호	월,수,금	수	간질환(간염, 간경변, 간암)		*박 승 하	금	금	미용성형, 유방성형재건, 안면외상재건, 미세수술				
	*전 훈 재	화,목,금	금	위장관양성질환, 식도암, 위암, 대장암		*이 병 일	월,수	월,수	유방재건, 지방성형, 수부재건, 눈, 코, 주름성형, 레이저				
	*이 흥 재	월,화,목,토	화	담석, 담도암, 췌장염, 위장관질환[토요일:4주]		*윤 을 시	화,목	화,목	일반재건성형, 미세수술				
	*진 윤 태	수,금	화	위장관양성질환, 식도암, 위암, 대장암		일 반 의	월,수,금	월,금	외상				
	*김 보 라	월	수,목	위장관양성질환, 식도암, 위암, 대장암		소아청소년과 3층 ☎5650	*손 창 성	화,수	수,금	소아심장질환, 신생아			
	*김 정 인	수	월,금	위장관질환			*이 광 철	월,목,금	목	소아혈액종양, 대사질환			
	*김 진 석	월,목	월,금	간질환(간염, 간경변, 간암)			*정 지 태	화,금	월,화	소아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환경성질환			
	*최 혁 순	화	화	위장관질환			*이 기 형	월	월,수,목	소아내분비질환(저신장, 성조숙증, 갑상선, 비만)(목요일:2,4주)			
			위장관질환	*유 은 희	월,수		화,금	소아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환경성질환					
			위장관질환	남 호 경	수,금,토		화	미숙아, 신생아질환[토요일:4주]					
			위장관질환	바 우 어	화,목,토		화	소아내분비[토요일:3주]					
			위장관질환	일 반 의	화,목		화,목	소아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환경성질환[토요일:1,2주]					
			위장관질환					예방접종(오전10:30~11:30/오후14:30~15:30)					
			위장관질환					손 창 성 (월 수 오) : 소아심장초음파(심장초음파실) 이 기 형 (목 오) : 저신장, 성조숙증, 당뇨, 갑상선 윤 을 시 (목 오) : 미숙아, 신생아질환 이 은 희 (목 오) : 미숙아, 신생아질환 바 우 어 (목 오) : 소아신경생리 일 반 의 (수 오) : 소아신장질환					
내과 3층 ☎5410	신장	*조 원 용	수,금	월,수	고혈압, 신장질환	소아클리닉	*배 정 원	월,화,목	월,화,목	유방암 및 갑상선암/유방암클리닉(목:오전), 유방암성형클리닉(화:오전)			
		*조 상 경	목	수,목	고혈압, 신장질환		*김 훈 업	수	월,목	갑상선암 및 부갑상선 질환, 부신종양/로봇갑상선수술클리닉(수:오전)			
		*김 명 규	월	화	고혈압, 신장질환		이 해 윤	금	화	유방 및 갑상선 질환			
		*김 이 재	화	금	고혈압, 신장질환		유 지 영	수,금	수,금	유방 및 갑상선 질환			
		*조 은 정	화	월,목	고혈압, 신장질환		안과 2층 ☎5520	*조 윤 영	월,목	월,목	사시클리닉, 야시		
	감염	*김 민 자	수,금	월	감염질환, 림프절클리닉, 열병클리닉			*김 호 재	화,목	월	백내장클리닉, 각막클리닉, 근시교정(라식)클리닉		
		*김 윤 영	월,목	화	감염질환, 림프절클리닉, 열병클리닉			*김 호 재	화,목	망막 클리닉, 유리체(수:오전-레이저환자만)			
		*김 시 현	수,금	수,금	감염질환, 림프절클리닉, 열병클리닉			*유 정 권	금	화,수	녹내장클리닉, 백내장(수:오전-초진환자만)		
		*박 용 용	화,수,목	화,수,목	감염질환, 림프절클리닉, 열병클리닉			*서 영 수	화,수	목	사시, 야시, 안성형		
		*김 해 숙	화,수,목	화,수,목	감염질환, 림프절클리닉, 열병클리닉			*강 수 연	화	화	백내장, 각막, 안과일반		
류마티스	*지 중 대	목,금	월,수	관절염, 류마티스, 루프스	일 반 의	수,금		수,금	안과 일반학				
	*이 영 호	월,화,수	화,목	관절염, 류마티스, 루프스	*조 경 환	월,수,금		월,수,금	노안학, 골다공증, 만성질환, 호스피스				
				관절염, 류마티스, 루프스	*김 중 준	화,수		수,금	골다공증, 노인학, 건강증진, 금연				
				관절염, 류마티스, 루프스	*김 양 현	목		화,목	비만, 건강증진, 해외진검, 건강상담				
				관절염, 류마티스, 루프스	한 병 덕	월,화,금	월	금연, 비만, 건강증진					
내과 일 반 의	*최 동 섭	월,화,목,금	목	내분비	가정의학과 2층 ☎5104	*이 민 수	월,수,금	수	신체검사, 건강상담, 성인예방접종				
	*김 희 영	화,수,금	월,수	내분비		*김 병 주	월,목	월,목	우울증, 치매, 조현병				
	*김 주 형	목	월,화,목	내분비		*이 현 정	화,수,목	화	수면장애, 적응장애, 조현병				
	*김 윤 정	수,금	수,금	내분비		윤 호 경	금,토	화,목	불안장애, 공황장애, 수면장애[토요일:1주]				
	*안 재 희	월	화	내분비		최 인 광	화,토	월,금	일반정신의학[토요일:2,4주]				
	*김 남 훈	금	화	내분비		일 반 의	월,수~토	월,수,금	일반정신의학[토요일:매주]				
	중양혈액 내과	*김 열 홍	수	월,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정신건강 의학과 2층 ☎5505	*김 병 조	월,수	화,수	파킨슨병, 운동장애, 치매, 기억장애		
		*신 상 인	목,금	화		두경부암, 폐암, 호스피스		*김 병 조	월,수	화,수	다발성경화증, 말초신경질환, 척추, 근육질환(화요일:초진진료)		
		*김 병 수	화,금	화		혈액암(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식, 혈액질환		*정 기 영	수,목	월,목	간질(뇌전증), 수면장애, 두통(목요일:수면장애)		
		*박 경 화	월	수,목		유방암, 부인과암, 비뇨기암		*유 성 희	월,화,금,토	화	뇌졸중, 뇌혈관질환(금:오전 2,4주)[토요일:4주]		
*박 용 태		화	화,금	혈액암(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식, 혈액질환	*이 찬 념	화,금,토		목	뇌졸중, 어지럼증, 두통(금요일:1,3주)[토요일:2주]				
방사선종양 학과	*김 철 용	월,화,목,금	월,목	폐암, 소화기암, 두경부암, 유방암	산부인과 2층 ☎5450	*김 선 행		목	수	불임(체외수정), 폐경기관리, 여성내분비			
	*김 철 용	화,수	월,화,수,금	뇌종양, 부인암, 비뇨기암, 폐암, 림프종, 소화종양, 육종		*김 순 탁		월	화,금	불임(체외수정), 폐경기관리, 골반경수술			
	*김 철 용	화,수	화,금	종양학		*홍 순 철		월,토	화	산과, 임신중약물상담, 고위험임신클리닉[토요일:매주]			
	*김 철 용	화,수	화,금	종양학		*송 재 훈		수,금	월	부인암(자궁경부암, 난소암, 내막암)Colpo수술, 로봇수술			
	*김 철 용	화,수	화,금	종양학		*이 상 훈		화,금	수,목	부인암, 중앙생식보존(암환자수정관, 난자, 난소동결&이식)			
심혈관 센터 4층 ☎6700	*김 열 홍	수	월,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산부인과 클리닉	*배 효 숙	수,목	목	산과, 일반산부인과			
	*신 상 인	목,금	화	두경부암, 폐암, 호스피스			정 예 인	화	월,금	자궁탈출, 부인암, 일반산부인과			
	*김 병 수	화,금	화	혈액암(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식, 혈액질환			일 반 의	월,금,토	화,수	일반산부인과[토요일:매주]			
	*박 경 화	월	수,목	유방암, 부인과암, 비뇨기암			호흡기내과 ☎5111	*인 광 호	월,수,목	화,수,목	호흡기, 폐암,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박 용 태	화	화,금	혈액암(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식, 혈액질환				*이 상 업	화,목	월,수	호흡기, 폐암,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이 석 영	목	화,수	혈액암(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식, 혈액질환	*이 승 준			토	화,수	호흡기, 폐암,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질환(토요일:3,4주는 휴진)			
	*김 해 숙	목	화,수	혈액암(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식, 혈액질환	*이 은 정			금	금	호흡기, 폐암,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김 철 용	월,화,목,금	월,목	폐암, 소화기암, 두경부암, 유방암	흉부외과 ☎5436			*김 광 택	화	목	폐, 기관지, 식도외과, 다한증, 하지정맥류		
	*김 철 용	화,수	월,화,수,금	뇌종양, 부인암, 비뇨기암, 폐암, 림프종, 소화종양, 육종				*신 호 성	금	월	심장(관상동맥, 판막), 혈관질환, 심장이식		
	*김 철 용	화,수	화,금	종양학				*정 재 승	화,금	화,금	대동맥, 관상동맥, 말초혈관질환, 심장판막, 심장이식		
*김 철 용	화,수	화,금	종양학	정 재 훈		수		화,수	일반 흉부질환				
*김 철 용	화,수	화,금	종양학	외과 3층 ☎5401		*김 중 식		수	월	위암, 상부위장관 질환			
*김 철 용	화,수	화,금	종양학			위장관		*박 성 수	[해외연수: 2013년 8월까지]	수,금	위암, 상부위장관 질환		
*김 철 용	화,수	화,금	종양학				*조 성 일	수,금	수,금	위암, 상부위장관 질환			
*김 철 용	화,수	화,금	종양학				간담체	*서 성 식	월,수	화,수	간, 담도, 췌장질환		
*김 철 용	화,수	화,금	종양학					*김 동 식	화,금	화,금	간, 간지식, 담도, 췌장질환		
*김 철 용	화,수	화,금	종양학					*유 영 동	목	월	간, 담도, 췌장질환		
*김 철 용	화,수	화,금	종양학		*정 성 원	화,금		화,금	간, 담도, 췌장질환				
*김 철 용	화,수	화,금	종양학		대장항문	*김 선 한		월,수	화	간, 담도, 췌장질환			
*김 철 용	화,수	화,금	종양학			*김 진 화	화	화	대장, 직장, 항문질환				
*김 철 용	화,수	화,금	종양학			*김 진 화	화	화	대장, 직장, 항문질환				
*김 철 용	화,수	화,금	종양학	*김 진 화		화	화	대장, 직장, 항문질환					
*김 철 용	화,수	화,금	종양학	*김 진 화		화	화	대장, 직장, 항문질환					
정형외과 3층 ☎5430	*김 관 태	화	목	장기이식(신장, 췌장), 혈관질환, 하지정맥류	치과 2층 ☎5423	*김 제 중	수,금	수	구강외과, 임플란트				
	*박 재 형	수	월,수	협심증, 고혈압, 심혈관중재시술		*이 정 구	월,목	월	배뇨장애, 요실금, 전립선 레이저수술				
	*박 지 은	수,금	수,금	협심증, 고혈압, 심혈관중재시술		*천 준 호	화	화,목	중앙학, 전립선암(로봇-복강경수술)				
	*박 예 민	금	화	협심증, 고혈압, 심혈관중재시술		*강 식 준	화,목	화,목	내 비뇨기과학, 일반비뇨기과학, 중앙학				
				협심증, 고혈압, 심혈관중재시술		장 훈 아	금	금	일반비뇨기과학				
				협심증, 고혈압, 심혈관중재시술		일 반 의	화,금	화,금	일반비뇨기과학				
				협심증, 고혈압, 심혈관중재시술		재활의학과 2층 ☎6470	*권 희 규	월,수,금	월,목	전기진단, 뇌성마비, 척추손상			
				협심증, 고혈압, 심혈관중재시술			*강 윤 규	화	월,목	통증, 관절염			
				협심증, 고혈압, 심혈관중재시술			*이 상 현	목	화,수	척추디스크, 관절염, 어깨통증			
				협심증, 고혈압, 심혈관중재시술			*편 성 법	수,목	화	뇌질환재활, 인지장애, 연하(삼킴)장애			
			협심증, 고혈압, 심혈관중재시술	*윤 형 식	월,금		목	일반재활의학과과학					
			협심증, 고혈압, 심혈관중재시술	일 반 의	화,목		월,수,금	견관절통증, 경부통증, 요통					
			협심증, 고혈압, 심혈관중재시술	치과 2층 ☎5423	*김 제 중		수,금	수	구강외과				
			협심증, 고혈압, 심혈관중재시술		*이 정 구		월,목	월	교정과				
			협심증, 고혈압, 심혈관중재시술		*천 준 호		화	화,목	보존과				
			협심증, 고혈압, 심혈관중재시술		*강 식 준		화,목	화,목	보철과				
			협심증, 고혈압, 심혈관중재시술		장 훈 아	금	금	구강외과					
정형외과 3층 ☎5430	*부 윤 정	목	화	소아외과, 탈장	이비인후과 2층 ☎5485	정 예 인	화	월,금	치주과				
	*채 인 정	화	화	무릎, 인공무릎관절, 관절경, 척추		일 반 의	월,금	월,금	교정과[토요일:매주]				
	*이 순 혁	수	월	소아정형외과, 사지연장술, 족부, 금요일:1,3,5주(뇌성마비 및 보행장애, 족부변형)		코 알레르기	*이 상 학	월,수,토	월	알레르기, 후각, 코성형, 비부동염, 비부비동 증양[토요일:4주]			
	*서 승 우	화	화	금요일:2,4주(교관절이형성, 초음파클리닉)			박 세 진	[해외연수: 2013년 7월까지]	화	비과, 일반이비인후과학			
	*박 중 용	금	수,목	척추측만증(1,3,5주)			전 영 준	화,금	화	비과, 일반이비인후과학			
	*박 중 용	금	수,목	수부, 미세수술			*정 학 현	목	월,목	만성중이염, 소아이비인후과, 어지럼증			
	*한 승 범	월,목	목	인공술관절, 인공고관절, 고관절, 골절, 외상학			*장 기 정	화,금,토	수	만성중이염, 어지럼증, 인공와우, 보청기[토요일:3주]			
	*박 중 훈	화,토	화	중앙, 외상			장 지 원	월,수	수	만성중이염, 어지럼증, 인공와우, 보청기, 일반이비인후과학			
	*정 응 교	월,금,토	금	어깨, 팔꿈치, 스포츠외과[토요일:2주]			*정 광 윤	화,목,토	화	두경부암, 갑상선암, 부갑상선암(내시경, 로봇수술)[토요일:2주]			
	*박 시 영	[해외연수: 2014년 2월까지]	금	척추, 외상			*백 승 국	수,금,토	수	두경부암(후두암, 구강암, 편도암, 인두암, 경부종물)[토요일:1주]			
*이 대 권	화,토	목	무릎, 스포츠외과[토요일:1,3,4주]	*박 민 우	월		목,금	두경부, 일반이비인후과학					
*김 태 권	수	수	외상	일 반 의	목,금,토		월,목	일반이비인후과학[토요일:매주]					
신경외과 3층 ☎5550	*김 태 권	월	월,금	외상	이비인후과 클리닉	장지원(수 중앙)	수	수	정광윤(목 오전): 갑상선 중앙 클리닉				
	*김 태 권	월	월,금	외상		영상의학과 3층 ☎5571	*이 남 준	월,수,금	금	뇌혈관조영술 및 뇌두경부 중재시술			
	*김 태 권	월	월,금	외상			*김 윤 환	월,화,목,금	월,화,목	간암 및 복부 인터벤션시술			
	*김 태 권	월	월,금	외상			*조 성 범	월,수,금	월,수,금	간암 및 혈관 인터벤션시술			
	*김 태 권	월	월,금	외상			천 기 정	월	월	중앙학외과, 방사성핵종치료			
	*김 태 권	월	월,금	외상			마취통증의학과 ☎5529	*장 성 호	월,목	월,목	통증관리		
	*김 태 권	월	월,금	외상				*박 지 용	화,금	화,수,금	통증관리		
	*김 태 권	월	월,금	외상				외국인진료센터 ☎5677	이 희 순	월~금	월~금	일반적인 외국인 내과, 소아과 질환	
	*김 태 권	월	월,금	외상					통합의학센터 ☎6830	이 성 재	수,금	월,수,목	심장건강, 뇌정신건강, 피부건강, 여성건강, 양간질, 만성통증관리, 학습장애클리닉, 만성피로클리닉
	*김 태 권	월	월,금	외상									
*김 태 권	월	월,금	외상										
*김 태 권	월	월,금	외상										

MEDICAL PRIDE KUMC
WORLD CLASS SAFETY

고려대학교병원, JCI 재인증 획득

JCI 최신개정판(제4차) 평가기준 세계가 인정한 가장 안전한 병원



JCI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재인증 획득



고려대학교병원
KOREA UNIVERSITY HOSPITAL